

# 한국불교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다

진광불회-참된 빛은 번쩍이지 않는다

유철주 지음 | 담양북스 펴냄 | 1만7천원



“지금 한국불교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불교 차세대 리더 열아홉 분의 스님(사진)들에게 ‘한국불교의 미래’를 물었다. 저자가 2년 전 출간했던 <산승불회>와 맥을 같이한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미래’란 곧 과거로 남을 ‘역사’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남겨질 역사를 이미 쓰기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책 <진광불회>는 미리 쓰는 역사의 일부다.

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끝에 부처님과 선지식들의 말씀을 출간하여 전하기로 했다.

“한국불교를 비판적으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불철주야 정진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前 현대불교신문 기자이며 현 불교포커스 객원기자인 저자는 각 분야에서 정진하고 있는 열아홉 분의 스님들에게 한국불교의 미래를 물었다.

“한국불교가 위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불교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등 원론적인 물음에서부터 “도심에 사는 불자들이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승가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불교계에 노후복지가



한국불교의 역사는 찬란했던 때도 있었고, 억압 받고 암담했던 때도 있었다. 짧지 않은 역사 속에서 희비를 거듭해온 한국불교는 찬란했던 때는 찬란했던 이유로, 암담했던 때는 암담했던 이유로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되었고, 우리 삶의 등불이 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시대가 어려울 때 어려움 속에 뛰어 들었고, 한 시대를 마감할 때마다 새로운 문 앞엔 선지식들이 있었다. 우리의 정서와 생활 전반을 알게 모르게 이끌어 왔다. 때문에 종교라는 이름 말고도 우리가 한국불교에 붙일 수 있고 불어줘야 하는 다른 이름은 많을 것이다. 우리 역사의 축이고 문화의 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는 늘 검토되어야 하는 것일 것이다.

## 차세대 리더 열아홉 분 스님과 한국불교 점검 위한 구체적 문답

왜 필요한가요?”, “교구본사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돈오돈수가 맞나요? 돈오점수가 맞나요?” 등 종단 운영에서부터 포교, 수행, 승가교육 등 불교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간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불교가 천천히 망하느냐, 빨리 망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대중과 호흡하지 못하고 사회 흐름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과 각종 비리와 추문이 겹쳐져서 남아 있는 상황을 빨리 끊고 정말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고창 선운사 주지 범만 스님은 올바른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책은 크게 ‘미래의 길’, ‘지혜의 길’, ‘전법의 길’ 세 분야로 구성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격정하며 주고받은 치열한 문답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 극단의 환경을 경이의 풍경으로 ... '붓다의 땅'

하늘의 땅, 사람의 땅-라다크 기행

남수연 글·사진 | 종이거울 펴냄 | 1만7천원



‘오래된 미래’라 불리는 땅이 있다. 히말라야의 고갯길에 펼쳐져 있는 인도 최북단 라다크. 좁고 건조한 고산 계곡의 환경은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혹독하고 극단적이다. 그러나 그 척박한 땅은 티베트고원으로부터 전해진 티베트불교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작은 티베트’로 불리는 붓다의 땅이다.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 라다키들의 신심과 환한 미소는 그토록 척박한 ‘극단의 자연환경’을 ‘경이로운 풍경’으로 받아들였다. 저자인 법보신문 취재부 남수연 차장이 한 발 한 발 걸으며 모은 그곳의 이야기다.

라다크는 언어학자이며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의 저서 <오래된 미래>를 통해 알려졌다. <오래된 미래>는 호지가 1975년 언어 연구를 위해 인도 북부 작은 마을 라다크에 들어갔다가 빈약한 자원과 혹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지혜를 통해 천년이 넘도록 평화롭고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해온 라다크가 서구식 개발 속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사회적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호지는 “인류의 미래를 담보해줄 가치,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 방법을 우리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실천해 왔으며 이제 우리의 미래는 그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라다크 사람들의 삶과 문화, 그들의 생각을 통해 전달한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라다크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

을 키웠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라다크라는 이름은 이상향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라다크를 다녀간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이미 관광객들의 수중에 떨어진 지금의 라다크에서, 오래된 미래를 발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하지만 “누구도 그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호지의 말처럼 “누구도 그곳에서 원하는 모습만 보고, 원치 않는 모습을 외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림동화나 모험소설처럼 아름다운 풍경과 흥미진진한 체험만을 생각한다면 나그네는 해발 3,500미터의 고갯길에서 눈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말한다.

오래된 미래의 땅의 이름 라다크는 지도상에서 찾을 수 없다. 라다크는 지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다크라는 말은 10세기 중반 인도 북부 히말라야의 일부 지역을 지배했던 라다크 왕국의 옛 영토를 중심으로 그곳에 형성돼 있는 독특한 문화권과 그 영향 아래 있는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다.

해발 3500미터에 자리 잡고 있어 ‘하늘 도시’라는 낭만적인 별명을 갖고 있는 라다크의 중심도시 라레는 중앙아시아와 인도를 오가던 카라반들이 모여 들던 고산지대 교역로의 주요 거점지였다. 라다크의 문화나 관습, 종교적 특징은 전통적으로 티베트에 가깝다. 특히 1974년에 이르러서야 처음 외국에 개방된 덕에 라다크의 독특한 전통, 특히 티베트불교의 특징은 정작 티베트보다도 더 잘 보존돼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다. 하늘과 땅, 사람과 자연, 그들의 신심과 삶이 하나된 거대한 꽃다발 같은 라다크. 희박한 공기 탓에 더 푸르게 빛나는 하늘과 만년설, 풀 한 포기 없이 황량한 산과 그 거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삶을 이어온 사람들, 그들이 지켜온 티베트불교문화 등 ‘미래’로 남겨두어야 할 라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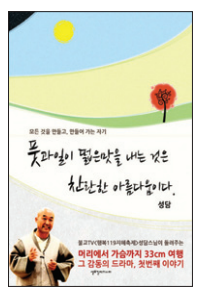
라다키 여인이 탑돌이를 하고 있다.

의 모습들을 펜과 렌즈로 보여준다. 여정은 레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라리크, 알치, 라마유르까지 이동하며 산재해 있는 불교사원 탐사로 시작하여 히말라야에서 발원한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라다크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집중적으로 기록했다. 이어 중국과의 접경이자 중앙아시아의 출발점인 동쪽의 누브라계곡으로 이어진다. 지구에서 최고(最高)의 자동차도로로 불리는 카르동라를 넘어 디스켓과, 샤탄림과파와 카라반들의 흔적을 따라간다. 북쪽으로는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된 절경지 최북단 다마을까지 이동, 그곳에 남아있는 라다크 지역 소수민족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티세과파, 스텝팔레스 등 라다크왕국의 중요 불교 및 역사 유적이 남아있는 레 남쪽지역에서는 라다크왕조와 라다크불교의 역사 및 그곳 사람들의 생활을 담았다. 특히 라다크의 주요 불교사원 10여 곳과 왕궁 다섯 곳 등을 현장에서 기록, 라다크의 생활의 모습을 지면으로 소개하고 있다. 스님을 비롯해 청년층부터 노년층에 이르는 다양한 라다키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과 문화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하늘의 땅인지, 사람의 땅인지. 정녕 우리의 ‘미래’가 그곳에 있다면 누군가는 가보아야 할 땅, 라다크 이야기다. 박재완 기자

## 행복의 시작은 자기를 바로 아는 것

뜻과일이 뒤편을 내는 것은 찬란한 아름다움이다

성담 지음 | 셀프컬처리서치 펴냄 | 1만5천원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집이 더러운 걸 보고 ‘여편네가 집구석에서 집도 안 치우고 뭘 하냐’고 화를 냈다. 아내는 아내대로 화가 나서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서, 집안일은 산더미인데 도와주는 것도 없다.’며 남편 탓을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그런데 누가 행복해지고 싶은 것인가? ‘자기’이다. 문제는 자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책은 잘못된 줄 알고, 잘못된 줄 알고 원망하고 자책하던 삶들에게 찬란하게 아름다운 자신을 알게 하여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심고 바로 거둘 수 있는 지혜를 전한다.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줄 모르는 뜻과일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햇살 같은 지

혜의 말씀이다. 책은 저자인 성담 스님(호심사 주지)이 불교TV ‘행복 119 지혜축제’에서 강연한 내용을 중에서 자기 이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전 강의 내용을 더해 엮은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읽는 것을 ‘머리에서 가슴까지 33센티미터 깨달음과 감동의 여행’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감동의 여행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아직 뒤편을 내는 뜻과일입니다. 누구나 완벽하게 다 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맛있게 익어가려면 먼저 ‘내 뜻이다.’라고 시작해 보십시오. 집이 더러우면 남편이 먼저 ‘애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많이 바쁘고 힘들지. 또 도와줘서 미안해.’ 해보고, 남편이 화를 내면 ‘여보, 일하느라 힘들 텐데 청소도 못 해서 미안해.’ 해보십시오.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소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책은 ‘누구 잘못이냐? 대체’, ‘참회의 의미’, ‘나도 알아! 내 뜻은 거지’ 등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박재완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6 ~ 3/12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민현	현지공헌자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4	뉘는 마음 밝은 마음(개정증보판)	김재웅	웅화
5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6	지금 당장 도법 스님의 삶의 혁명	도법	다산초당
7	마음 뉘는 법	김재웅	웅화
8	조금 특별한 불교 이야기	지현	불광출판사
9	대원만 수행 요결	적재	최영출판사
10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친구	인라잇먼트

\*불서출판사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 대부분의 병(病), 의외로 치료가 쉽습니다

## 익생양술대전(益生養術大全)

-천연의약요법전서-

어쩌면 알고 지나쳤을 그러나 현대의학의 방향을 틀게 한 경이로운 가치가 숨어있는 이 땅의 각종 약초들을 명쾌히 총괄 도감화 했으며 이를 활용한 질병별 처방 및 약성에 따른 응용법 등 전통의약요법 5천년 정수를 총정리, 실용화를 꾀해 집대성함으로써 장구한 세월의 터득과 임상으로 얻은 양질의 천연의약술을 누구나 가정에서 손쉽게 활용토록 한 명실공한 자가진단치료 시대를 개막시킬 기념비적 위업!

권역서 저/ 전3권/ 4x6배판/ 양장본/ 3,600쪽/ 할인보급가 24만원(정가 40만원) 신용카드 및 현금 분할도 가능

- ▶1권 약초 편: 1천 종류 약초를 총괄 도해화, 폭넓은 이해를 돕는 분초학도감으로 꾸민.
- ▶2권 처방 편: 1천여 각 질병의 원인 증상 설명과 함께 전통민간요법 사상 최고의 처방(22,600여 단방)을 약재별로 제시, 태극 쓰도록 함.
- ▶3권 조제 편: 당대의 명(名醫)을 위시, 민가·사찰 등에 전수 발전되어온 각종 주침(灸術)·탕전·약차·식이요법 등 2,600여 응용치유법 망라.

◆자연과 전통에서 찾아낸 쉽고도 가장 완전한 의술◆

“현대판 동의보감 익생양술이 나왔다” -중앙일보-  
“토종약초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을 담고 있다” -한방과 건강-  
“무병장수를 향한 수천 년 지혜와 연구 노력의 집약판” -한국의약신문-  
“건강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일간스포츠-  
“명약이 꼭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님을 전 통민간요법은 증명하고 있다” -권역세(저자)-

###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엄혹한 필연을 어찌할 건가.

## 업(業)

나(我), 어떤 원인으로 나이며 나는 또 어떤 결과의 원인일까? 일면 삶과 운명이 달라질 그 인과(因果)문화 이야기!

1. 전생업의 비밀
2. 사후세계의 비밀
3. 심령치료의 기적
4. 내가 본 저승세계
5. 명제에서 온 편지
6. 영혼의 목소리
7. 전생이야기
8. 영의령이야기
9. 살아있는 조상령들
10. 명제에서 온 편지

지자경 외 저/ 전9권/ 신국판/ 총 3,000여쪽/ 할인보급가 97,000원(정가 121,500원)

가장 해박했던 정신이 담은 불교적 사유(思惟)와 성찰의 정점!

## 불교명저

일영 서경보 저/ 전10권/ 신국판/ 총 4,500쪽/ 할인보급가 175,000원(정가 250,000원)

### 모든 성패(成敗), 이것이 핵심

##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법칙-

여기 30년간의 광범위하고 밀밀한 조사 연구의 결론으로, 전체를 10개 영역으로 대별해 각 영역별 성공법칙들을 제시한다.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이자 위력적인 이 전략들은, 때로 폐부를 찌르는 아픔이 일침들은 당신을 강한 전사(戰士)로, 지혜로운 책사(策士)로 거듭나게 할 것이며 마침내 뜻한 바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한국인재경영연구회 편/ 신국판/ 전10권/ 총3,600여쪽/ 할인보급가 99,000원(정가 138,000원)

- ▶인간관계: 반대자는 곧 협력자다 외
- ▶자기개발: 완벽주의자는 위험하다 외
- ▶대화의 기술: ‘알았다’는 말의 의미 외
- ▶기획력: 기획을 망치는 감정임 외
- ▶리더십: 리더십과 통솔력의 차이 외
- ▶창조력: 아이디어만 많이 갖는 공통점 외
- ▶행동력: 문제는 없지만 세 가지 밖에는 없다 외
- ▶관리력: 어떻게 무엇을 꾸짖을 것인가 외
- ▶인간의 매력: 가장 큰 약점, 허영 외
- ▶사업성공: 장사가 잘되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외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

본 시리즈는 직장인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학습도서로 선정되어 독서통신교육 교재로 사용되고 있음.

“사람에 대한 명징한 이해 그리고 사람 간에 작동되는 상호 매커니즘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부터 허를 찌르는 기발한 역할상에 이르기까지 읽으면서 줄곧 몰라 놓았던 것에 대한 이론적 자극과 함께 성공법칙 변칙은 힌트를 만나게 된다” -정철천(누리기획 대표)-

☎ 전화하시면 우송해 드리며 대금은 수령후 송금하시면 됨. 문의전화 02-2618-0700, 070-8811-5775 학술편수관